종교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 -1367) 로 알려주세요.

창립 감사예배 및 임직식

은혜의 강 한인연합감리교회

은혜의 강 한인연합감리교회(담임목사 홍종걸, 235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는 지난 2일 창립 38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장로에 김동수, 집사에 Joan Hong, 김혜경 씨가 각각 임직됐다.

▶ 문의: (714) 870-9991

다민족 조찬기도회

한인라티노커뮤니티협회

한인라티노커뮤니티협회(Kingdom Life Comm-unity Association, 회장 김태현)가 오는 29일(토) 오전 7시 45분, 코리아타운에 있는 가든스윗호텔(681 S. Western Ave., LA, CA 90005)에서 다민족 조찬기도회를 연다.

행사 당일 주차는 무료이며, 아침 식사가 제공된다. 참석을 위해서는 사전등록해야 한다.

▶ 문의: (323) 600-5672, klcathkim@yaho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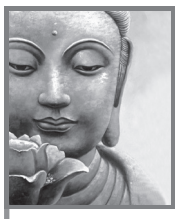
세계기도일 예배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남가주지부(Korean Church Women United USA, 회장 유화진)가 오는 3월 7일(토) 오전 10시 인랜드교회(담임목사 안 환,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에서 2020 세계기도일(World Day of Prayer) 예배를 드린다.

세계기도일 예배는 전세계 여성들이 매년 3월 첫째 주 같은 시간에 같은 기도문을 가지고 세계 평화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초교파적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날이다.

▶ 문의: (562) 569-9133



있다고 보는 것은 중생의 망상심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그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을 제도하는데 있다. 따라서 모든 종교의 시원(始原)도 이러한 인간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인간의 노력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이러한 점은 불교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절대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한 사람의 원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사문유관(四門遊觀)' 이라는 용어는 또는 불교를 웬만큼 아는 사람이라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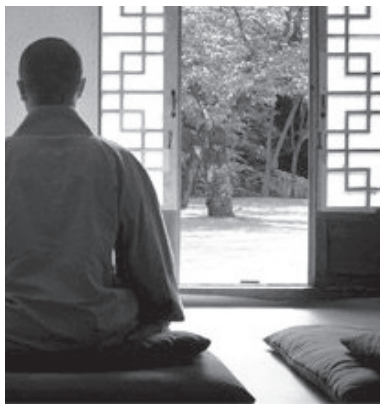
인도 카필라성의 태자 싯다르타는 어느 봄날 궁중 밖을 구경 나갔다가 생로병사(生老病死)에 얽혀서 고통받고 있는 생명을 보고 문득 인간의 생에 대한 의심이 솟구친 것이다.

'대체 생(生)이란 어떤 것이며, 왜 저 사람은 뭇 고통을 받고 있는가? 또 저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인가?'

불교는 이와 같이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가 갖가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이것이 불교의 중생제도라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생로병사이다. 모든 고통은 생(生)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생(生)이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고통이 뒤따른다. 이것은 생명을 갖고 있는 중생이라면 누구나 감수해야 하는 고통이다. 이 세상 누구도 태어난 이상, 늙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생로병사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생로병사가 '있다' 고 보는 데서 기인한다. 생사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거기에는 고통이 따른다. 특히 이러한 입장은 소승불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소승불교에서는 일체를 '있다' 고 주장한다. 따라서 생사도 있고 고통도 있는 것으로 본다.

소승불교는 이러한 유사상, 즉 고(苦)·집(集)·멸(滅)·도(道)·사제법(四諦法)으로 그 기본을 삼는다.

그러므로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망상의 집착을 끊어야 하고 또 멸도(滅道)해야 한다. 그래서 소승불교에서 수도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고 또 자기만 제도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 때의 제도가 참뜻의 제도일 수는 없지만 그들은 고가 있는 것은 육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여 자신의 육체를 떨어버리기에 모든 힘을 기울인다.

그들은 대개 고(苦)를 여덟 가지로 나누고 있다. 생(生)·로(老)·병(病)·사(死)와 애별리고(愛別離苦) 원증회고(怨憎會苦) 구부득고(求不得苦) 오음성고(五陰盛苦)가 그것이다.

생로병사도 큰 고통이지만 정든 사람끼리 헤어지는 것도 큰 고통이고 미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큰 고통이다. 그리고 원하는 바를 취하지 못하는 고통도 작은 고통이 아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고통은 오음(五陰)이 치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신적 육체적 욕망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괴로움이다. 이와 같은 뭇 고통을 중생이면 누구나 받아야 한다.

그래서 소승불교의 방편은 한 마디로 포고단집 망멸수도(怖苦斷集 望滅修道 : 괴로움이 두려워 괴로움의 원인을 끊고 적멸을 소망하여 도를 닦는다)라고 할 수 있다.

'있다' 고 보는 소승적 입장은 현상적인 것을 그대로 존재로써 긍정한다. 그러나 이 있다는 생각, 그견해가 바로 고통의 원인이다.

그러면 대승의 입장은 어떤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대승불교에서는 생사란 본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고통도 없고 고집멸도의 사제도 없다. 생사가 없는데 어찌 고통이 있을 수 있단 말인?

일체는 공한 것이고 모든 존재는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고통을 벗어 나는 길은 이 '없는 도리', '공한 이치' 를 터득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마음을 반조하지 않으면 경을 보아도 이익이 없고, 바른 법을 믿지 않으면 고행해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心不反照 看經無益 不信正法 苦行無益)" 는 말과 같이 공한 이치를 관조할 줄 모르면 아무리 경전을 많이 보고 오래 좌선을 해도 이익될 것이 없다.

근본을 알지 못하고 마음을 관조하지 못하는 공부는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한다.

생사는 물거품이다.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생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것을 있다고 보는 것은 중생의 망상이다.

이 망상을 떨쳐야 생사는 초월되고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그 경지가 바로 해탈이요 성불이다.

-원행 스님-